

말씀의 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출애굽기 27:1~8>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40일 금식까지 시켜가며 모세를 통해 계시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명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성막의 모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성막,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필수요소인 것입니다.

성막에는 많은 영적교훈이 담겨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문에서 시작해서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뵈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게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목상하며 장면을 연상하면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막 뜰, 성소와 지성소, 문, 번제단, 물두멍받침, 떡상, 향단, 언약궤등 모두 딱딱하기 그 지없는 사각형입니다. 성막 뜰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성물은 바로 번제단인데 정사각형으로 되고 모서리에는 뿔이 있는 각진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지고 각진 모습입니다.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높이는 3규빗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의 제단이 원형이거나 삼각형이었는데 비해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 합니다. 물두멍은 모양과 크기에 대해 특별히 많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통에 의하면 위는 둥글고 받침은 모지고 각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등대, 떡상, 그리고 향단 모두가 사각형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판결 흉패도 네모 반 듯합니다.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15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성소와 지성소는 둘 다 사각형인데, 성소는 직사각형,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 치밀한 네모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모지고 각진 속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지고 각진 분명한 결단을 하며 그 길을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한고비 넘어갈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한단계 더 들어갈때마다 타협이 없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과 우리도 코드를 맞추어야만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짝짓고 우유부단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확실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단호하고 분명하십니다.

하나하나 성소기물, 과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포로에게 베푸는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지고 각진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욱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감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가 모지고 각진 결단을 할 때마다 계시가 깊어집니다. 그 이후에 말세에 있어야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환하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결단을 하는 만큼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 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마다 계단식 성장을 합니다. 더 분명한 결단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단의 길을 따라서 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순전한 모습이여야 합니다.

성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싼 재료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거친 성물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순전한 정금으로 재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번제단을 구성하는 놋보다는 은이 더욱 순결하고 은보다는 금이 더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성막 마당에는 온통 놋, 즉 구리와 아연이 섞여있는 투박한 금속으로 만든 성물들이 있지만 성소건물 입구앞면은 금으로 싹 기둥과 놋 받침, 그리고 성소측면과 후면은 나무성막벽(배대)과 은받침과 덮개가 위치를 차지합니다. 즉 금, 은, 놋의 혼합으로 이뤄진 것이 성소건물입니다. 성소건물 안에는 온전히 정금으로 만들거나 덮은 등대, 떡상, 향단과 그리고 성소 안에는 가장 많은 정금이 들어간 법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욱 깨끗하고 불순물이 적은 정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정금을 뿔아내려면 그만큼의 제련과정과 그만큼의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더욱 많이 거칠수록 더욱 깊이 들어가며 더욱 가치있고 비싼 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찌꺼기를 버리는 만큼, 불순물이 제련되는 만큼 더욱 가치있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이 더욱 귀한 자리에 두십니다. 불순물을 버려지는 만큼 더욱 깊은 곳으로, 하나님 임재 가까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버려야할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시는 영적인 위치가 달라집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우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 기분 나쁜 것,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면의 수많은 불순물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뱉아내고 버리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가까이 성금성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세상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놓치는 애서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불순물을 버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릴 가치있게 세우시고 신령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버려야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보다 더 축복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신령한 두란노교회 식구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6년 11월 13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1. 20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3:1~9, 고린도후서 13:11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변화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